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및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추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26.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서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주)엔에스쇼핑에 근무하고 있는 신윤희(37)씨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주)원스에 근무하고 있는 워킹대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인력 공백이라며,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내년에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대기업이 부지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국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66개 운영 중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995)
		담당자	사무관	손우진 (044-202-744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담당자	사무관	황소진 (044-202-7976)



붙임1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요

□ 일 시 : '24. 10. 16. (수) 08:45 ~ 09:40

□ 장 소 :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 공동직장 어린이집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1층

□ 참석대상

- (고용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일가정양립과장 등

- (어린이집) 일하는 엄마·아빠(4명),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

□ 세부 계획(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55')	주요 내용	비고
08:45~09:00(15')	▶ 등원 아동 및 학부모 인사	
09:00~09:05(05')	▶ 인사 말씀	장관
09:05~09:25(20')	▶ 일·육아 양립 현장 의견 청취(차담회)	참석자
09:25~09:30(05')	▶ 마무리 말씀	장관
09:30~09:40(10')	▶ 직장어린이집 현장 순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7월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대비 1,516명(7.9%) 늘었고,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대비 4,658건(32.9%) 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출생 위기입니다.

이러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지난 9.26일에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급)
-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에 4.4조원으로
1.7조원 이상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